

국가예산 확보 국회 공략 집중

전라천년 문화권 관광개발 ·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조성 · 균형발전 등
송하진 도지사, 여야 핵심인사 · 주요 상임위원장 등에게 핵심사업 건의

송하진 도지사가 2020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방문해 여야 핵심인사와 주요 상임위원장 등을 두루 만나는 등 전북 대도약을 일궈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중 공략에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국회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30일)부터 이튿날(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방문한다.

송 지사는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전라권 3개 시도를 연계한 미래 천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라천년 문화권 관광개발 계획 7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51억원 등 핵심사업 3건을 건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회의장을 만나서는 도로·공항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

치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개 선석 조성에 필요한 76억원, '21프 레젠퍼리 준비를 위해 세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 35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새만금 본격적인 내부개발촉진과 동부권 지역 등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개발 견인을 위한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10.8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확장 30억원, 주요 국도 건설 270억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예산지

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게는 새만금 신항만접안 시설 축조 76억원,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10억원,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원 반영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송 지사는 31일 전북 국회의원과 실시하는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뒤에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반영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가 본격 돌입함에 따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주요사업 착상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부처별 심사 동향을 신속 대응하고 있다.
송 지사는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예결소위의원, 각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만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쏟아 활동함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성공적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춘화추실 도정(春花秋實 通政) 실현을 위하여 예산 증액 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30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회의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전북 대도약을 일궈낼 2020년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를 찾아 현안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

전주정신 '꽃심' 알린다

전주시 · 전주역사박물관, 내달 1일 포럼 개최
강연 통해 지역 인물들 생애 · 시대적 배경 조망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 속에 전주정신인 '꽃심'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주정신을 알리기 위한 포럼을 연다.
시와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전주역사박물관 꽃심관(지하 1층)에서 '인물로 본 전주정신-꽃심'을 주제로 한 2019 전주정신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선포된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 전주'는 전주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대동·공유·율곡음·창신 4개의 정신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정신으로, 故 최명희 작가가 '훈불'에서 쓴 것처럼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으로 짙을 띄워내는 강인한 힘을 의미한다.
이번 포럼은 전주정신의 각 분야별 인물연구를 통해 전주정신 꽃심의 논리적·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가치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의 '전주정신 꽃심의 개념과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주의 역사문화 속에 나타난 대동(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 △행운유수(行雲流水)의 발원에 피어난 꽃심: 예술로 승화된 전주의 풍류(곽병창 우석대학교 교수) △율곡음의 정신(김기현 고전번역원 전주분원장) △역사의 신 지평을 연 창신의 인물론(함한희 전북대학교 교수) 등 총 5개의 주제의 심도 있는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김승중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로 △문운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최용철 전주시의원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 △김영무 전민일보 사회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의 논문은 전주학연구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으로, 추후 원고 수정 및 관련 자료들을 여여 대 중서로도 발간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물들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조망하고, 그들의 삶에 담긴 전주정신을 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의 전주에 끼친 영향과 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전주정신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천년이 넘는 전주의 역사·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전주의 지역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와 전주시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원로와 전문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오랜 토론과 숙고를 거쳐 지난 2016년 오늘의 전주를 만든 정신을 '꽃심'이라 규명하고 이를 '한국의 꽃심, 전주'라는 문장에 담아 전주정신을 선포했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천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천년고도 전주에서 수많은 인물이 배출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포럼에서 그들 모두를 망라할 수는 없지만 전주정신의 관점에서 '전주인'으로서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되짚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국 대학생들이 뽑은
사회공헌 1위 공기업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한국대학신문 창간 31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대학생 의식조사에서 제19회 한국대학신문 대상 공기업부문 '사회공헌도 1위'에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대학신문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대학에 재학생인 1,060명을 대상으로 '2019 대학생 의식조사 및 기업·상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9%가 국민연금공단을 공기업 중 최고의 사회공헌기관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은 2010년부터 10년 연속 공기업부문 사회공헌도 1위를 고수해 왔으며 이는 미래 가입자인 대학생들이 선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깊다. 한편, 사회공헌도 공기업부문에서 KORAIL(15.6%)이 2위, 한국전력(15.3%)이 3위, LH(13.3%)가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공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기간이 부족한 저소득가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2998명),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여행(4247명) 및 수급자 공감여행(1200명), 장학지원(378명), 독거어르신 위한 물품후원(2만8552명), 유족연금수급 아동 자립지원(4575명)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김윤상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남원농악보존회, 축제 한마당
내달 2일 사랑의 광장 일원서



남원시와 남원농악보존회(회장 류명철)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을 기념해 남원농악을 필두로 전국 최고의 국가무형문화재 농악단들이 함께하는 축하 한마당을 오는 2일 남원 사랑의 광장 앞 요천 특설무대에서 성대히 막을 올린다.
남원시와 남원농악보존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완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각계 내·외빈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한마음으로 축하할 예정이며, 남원농악은 호남좌도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온전히 갖춘 대표적인 농악으로서 남원시 금지면 움정리를 중심으로 한 '독우물'에서 유래했다.
특히, 남원농악은 그 역사와 예술성, 남원농악보존회의 오랜 세월에 걸친 왕성한 전승활동 업적이 인정돼 김천 금릉빛내농악과 함께 지난 9월 2일자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류명철 회장은 "남원농악은 모든 차폐가 상모를 쓰고 다채롭고 화려하게 국관을 펼치는 호남좌도

농악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남원농악의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되어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축하 한마당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 김천금릉빛내농악이 차례로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의 대미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남원농악이 장식하며,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최고 농악단이 판과 개인놀이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만큼, 지역별 농악의 특성과 진수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마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농악보존회(063-635-8887)나 남원시 문화예술과 국악진흥계(063-620-616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제4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2019년 11월 2일 오후 6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

- 주최 : 전주매일신문,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 후원 : 전북도, 전주시